

 금융위원회		<b>보 도 자 료</b>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<b>보도</b>		<b>2017.9.4.(월) 조간</b>	배포	2017.9.1.(금)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(02-2100-2970)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(02-2100-1730)	<b>담 당 자</b>	김 민 하 사무관 (02-2100-2972) 이 영 민 사무관 (02-2100-1722)	
	국조실 금융정책과장 이 동 엽(044-200-2190)		김 정 훈 서기관 (044-200-2191)	
	기재부 외환제도과장 이 형 렬(044-215-4750)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송 진 혁(044-215-4230)		유 예 림 사무관 (044-215-4751) 조 윤 석 사무관 (044-215-4232)	
	공정위 특수거래과장 한 경 중(044-200-4430)		정 은 애 사무관 (044-200-4438)	
	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 성 훈(02-2110-3167)		김 봉 진 검사 (02-2110-3759)	
	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 지 현(02-2110-1567)		황 선 철 사무관 (02-2110-1525)	
	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 경 수(044-204-3202)		김 필 식 사무관 (044-204-3222)	
	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장 우 성(02-3150-1605)		김 상 순 팀장 (02-3150-0252)	
	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차 현 진(02-750-6615)		김 정 규 팀장 (02-750-6639)	
	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최 성 일(02-3145-7420)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장 김 주 영(061-820-1830)		김 용 태 팀장 (02-3145-7425) 윤 석 웅 팀장 (02-405-5563)	

## 제목 :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 개최 -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

- ◆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 를 개최
- ◆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조치 신속 추진,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규제 신설
- < 거래투명성 확보,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>
  - ✓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자율규제 권고
  - ✓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, '가상통화거래행위'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
- <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>
  - ✓ 「가상통화 합동단속반」 구성 등 범죄 단속처벌 강화
  - ✓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제재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

## 1. 회의개요

- 금일 '17.9.1.(금) 10: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 회의를 개최

- 일 시 : '17.9.1.(금) 10:30
- 장 소 :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- 참 석
  - (금융위)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서비스국장, FIU기획행정실장, 전금과장
  - (관계기관) 국조실, 기재부, 공정위, 법무부, 방통위, 국세청, 경찰청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국인터넷진흥원

## 2. 주요내용

### < 추진 배경 >

-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,
  -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,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을 언급
  -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·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,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
  - 아울러, 금일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당부하였음

## ❶ 거래투명성 확보,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

- ## ②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

-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·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
  -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범죄는 「합동단속반」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(~'17년말)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
  -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,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
  - 아울러,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, 공정위·검찰·경찰·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제도 구축할 예정

### ③ 규제·감독 문제 검토

-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,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
  - 각국 정부, 국제기구 등의 논의·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

### 3. 향후 일정

-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('17.9월, '17.12월)하고,  
○ 관계기관 실~~□~~점검~~□~~의(~~□□~~ ~~□□~~위 ~~□□□□□□□□~~)를 ~~□□~~ ~~□□~~하여  
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

## ①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

-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·공급에 따라 변동하며, 정부·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
- 또한,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
-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☑우 커 본인의 책임 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

## ②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

- ☑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
-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,
-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
-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☑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,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

\* 수원지방법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('16.6.20일, '16.7.27일, '17.6.22일)

## ③ 해킹 및 암호키(Private Key) 유실 위험에 노출

-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 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
- 또한,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(Private Key)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